

2022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안)

2018. 6. 29

목차

- I. 현행 수능 및 교육과정 분석
- II.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 III. 2022 수능 쟁점 분석
- IV. 국가 교육 회의 이송안 검토
- V. 2022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

I. 현행 수능 및 교육과정 분석

□ 2009 교육과정 편제(일반고 기준)

◦ 총 204단위 중 창의적 체험활동(24단위)을 제외하면 교과이수 기준은 180단위

- 필수이수단위는 86단위이며, 학교자율과정은 94단위 개설

◦ 국·수·영 기초교과는 총 교과(180단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90단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 과 (군)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음악/미술)	10	
	생활·교양	제2외국어/한문/교양 등	16	
	소 계		86	9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 2009 교육과정 보통교과 및 이를 반영한 2019~2020 수능 출제범위

(※ 붉은색 볼드는 2019~2020 수능출제범위 / 파란색은 교육과정상 일반적으로 이수)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국어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수학	기초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영어	기초 영어	실용 영어 I, 실용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 영어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 과학 I,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 지구 과학 II	고급 물리, 물리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고급 지구 과학, 지구 과학 실험,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체육·예술			과목 상세 생략 체육교과,	예술교과 각 10단위씩 총 20단위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총 16단위	기술·가정 독일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 스페인어 II, 중국어 I, 중국어 II, 일본어 I, 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아랍어 I, 아랍어 II, 베트남어 I, 베트남어 II 한문 I, 한문 II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 경제, 논술	과목 상세 생략

현행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 범위

구분	2019~2020 수능 출제범위	2021 수능 출제범위	특징
국어	화법과작문(5), 문학(5), 독서와문법(5) 총15단위	화법과작문(5), 문학(5), 독서(5), 언어(5) * 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출제 / 총20단위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 동일
수학 (가)	미적분Ⅱ(5), 확률과통계(5), 기하와벡터(5) 총15단위	수학Ⅰ(5), 확률과통계(5), 미적분(5) 총15단위	출제범위 다소 조정
수학 (나)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총15단위	수학Ⅰ(5), 수학Ⅱ(5), 확률과통계(5) 총15단위	
한국사	한국사(5) 총5단위	한국사(6) 총6단위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 동일
과학 탐구	물리학Ⅰ(5), 물리학Ⅱ(5), 화학Ⅰ(5), 화학Ⅱ(5), 생명과학Ⅰ(5), 생명과학Ⅱ(5), 지구과학Ⅰ(5), 지구과학Ⅱ(5) 총10단위	물리학Ⅰ(5), 물리학Ⅱ(5), 화학Ⅰ(5), 화학Ⅱ(5), 생명과학Ⅰ(5), 생명과학Ⅱ(5), 지구과학Ⅰ(5), 지구과학Ⅱ(5) 총10단위	
사회 탐구	생활과윤리(5), 윤리와사상(5), 한국지리(5), 세계지리(5), 동아시아사(5), 세계사(5), 법과정치(5), 경제(5), 사회·문화(5) 총10단위	생활과윤리(5), 윤리와사상(5), 한국지리(5), 세계지리(5), 동아시아사(5), 세계사(5), 정치와법(5), 경제(5), 사회·문화(5) 총10단위	
영어	영어Ⅰ(5), 영어Ⅱ(5) 총10단위	영어Ⅰ(5), 영어Ⅱ(5) 총10단위	
직업 탐구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의이해, 수산·해운산업기초,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 이수 단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의이해, 수산·해운산업기초,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이해 ※ 이수 단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제2외국어/ 한문	독일어Ⅰ(5), 프랑스어Ⅰ(5), 스페인어Ⅰ(5), 중국어Ⅰ(5), 일본어Ⅰ(5), 러시아어Ⅰ(5), 아랍어Ⅰ(5), 베트남어Ⅰ(5), 한문Ⅰ(5) 총5단위	독일어Ⅰ(5), 프랑스어Ⅰ(5), 스페인어Ⅰ(5), 중국어Ⅰ(5), 일본어Ⅰ(5), 러시아어Ⅰ(5), 아랍어Ⅰ(5), 베트남어Ⅰ(5), 한문Ⅰ(5) 총5단위	

Ⅱ. 2015 개정 교육과정 분석

□ 2015 교육과정 특징

◦ 교과목 재구조화

- '문·이과 융합 인재 양성' 차원에서 모든 학생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 개설**(국, 수, 영, 한국사, 통사, 통과이며 대부분 고1에 배정)
-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개설**(고2·3 배정)
- 세부 교과목 별 **범위·내용 및 수준 조정**(보통교과 중 특히 국어, 수학)

□ 이전 교육과정 대비 2015 교육과정 편제상 변동 검토

- 교과 이수 단위(180단위)는 2009 교육과정과 동일하나,
 - **이전보다 필수이수단위는 94단위로 증가**(86→94단위, ↑ 8)하였고, 학교자율과정은 **86단위로 감소**(94→86단위, ↓ 8)
- 한국사(6단위)가 기초교과로 편성됨에 따라, **국·수·영 교과**의 편성가능 규모도 이전대비 **84단위로 감소**(90→84단위, ↓ 6)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 자율 과정	
교 과 (군)	기초	국어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0		
		영어	10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0		
		과학	10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음악/미술)	10		
	생활·교양	제2외국어/한 문/교양 등	16		
	소 계		86		9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 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6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 2015 교육과정에 따른 2021 수능출제범위 검토 및 고교 현장에서의 실제 교육과정 편성 단위

◦ 2021 수능은 '17.8월 수능 개편이 유예됨에 따라 현행 수능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출제범위 결정('18.2월)

※ 붉은색은 2021 수능출제범위 / 파란색은 교육과정상 일반적으로 이수

교과 영역	교과(군)	공동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탐구	사회 (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물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10단위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10단위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 일반
	제2외국어	16단위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 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과목 상세 선택	

◦ 국·수·영도 이과는 74단위, 문과는 69단위이므로 기초교과 이수 한도인 84단위 이내이나,

- 학생의 국·수·영 교과 선택과목 수강 여지는 이과는 10단위(2과목), 문과는 15단위(3과목)에 불과

⇒ 2015 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권장하며, 국·수·영 보통교과의 최대이수가능단위를 축소(90→84단위)하였음에도,

- 2021 수능 영역 출제범위에 비춰볼 때, 수능 국·수·영 출제범위가 과도하면 사실상 다양한 선택 과목을 학생이 수강하는데 한계

Ⅲ. 2022 수능 쟁점 분석

1. 국어 영역

- **2009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이었으므로, 고교에서는 **총 15단위만 개설하면 충분**

- **2015 교육과정**은 교과목 및 내용 개편으로 동일한 범위의 수능 출제를 위해서는 고교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총 20단위 개설 불가피**

⇒ **(쟁점)**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 **2015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수능 국어 출제범위 검토 필요

<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학습내용	수능출제 (2019~2020)	교육과정	학습내용	수능출제	
					2021	2022
국어 I (5) 국어 II (5)	화법	X	(공통) 국어 (8)	듣기·말하기	X	검토 필요
	독서			읽기		
	작문			쓰기		
	문법			문법		
	문학			문학		
화법과 작문 (5)	화법과 작문의 본질	O	화법과 작문 (5)	화법과 작문의 본질	O	
	정보전달			화법의 원리와 실제		
	설득			작문의 원리와 실제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화법과 작문의 태도		
독서와 문법 (5)	독서와 언어의 본질	O	언어와 매체 (5)	언어와 매체의 본질	△	
	국어 구조의 이해			국어의 탐구와 활용	O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X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언어와 매체에 대한 태도	△	
			독서의 실제와 국어자료의 탐구	독서 (5)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						
독서의 태도						
문학 (5)	문학의 수용과 생산	O	문학 (5)	문학의 본질	O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과 삶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대한 태도				

2. 수학 영역

◦ 수학은 **가형/나형** 분리 출제, 고교 현장은 이과·문과 분리 운영

⇒ **(쟁점)** 문·이과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2015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수학 단일형 출제***

검토 필요

* 기하 등 심도 있는 수학 내용은 대학이 학생부전형으로 확인 권장

- 다만, 수학 단일형 출제 시 △인문사회계열 진학 희망학생들은 상대적 불리와 시험 부담 증가, △이과계열 상위 등급 학생들의 변별력 저하, △고교에서 수능 미출제 과목의 집중도 저하 우려, △공대, 인문대 등 모집계열별 수학 요구 수준 차이의 반영 곤란

◦ 다양한 과목 선택 독려를 위해 **진로선택과목은 수능 출제 제외 방향**

⇒ **(쟁점)** **기하 출제**에 대한 **수학 및 과학기술계**(특히 공대) 요구 존재

- 기하 출제 시 △진로선택과목 의무화 문제, △기하가 모든 이공계 필수로 보기 곤란 등을 이유로 2021 수능은 기하 출제 제외 조치

<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학습내용	수능출제		교육과정	학습내용	2021수능		2022수능	
		가형	나형			가형	나형		
수학 I	다항식	X	X	(공통) 수학	다항식	X	X	검토 필요	
	방정식과부등식				방정식과부등식				
	도형의방정식				도형의방정식				
수학 II	집합과명제	X	O		집합과명제				
	함수				함수와그래프				
	수열				경우의수				
	지수와로그				지수함수와로그함수	O	O		
미적분 I	수열의극한	X	O	수학 I	삼각함수				
	함수의극한과연속			수열	X	O			
	다항함수의 미분법			함수의극한과연속					
	다항함수의 적분법			미분					
미적분 I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O	X	수학 II	적분				
	삼각함수				미적분	수열의극한	O		X
	미분법					미분법			
	적분법			적분법					
확률과통계	순열과 조합	O	O	확률과 통계	경우의수	O	O		
	확률				확률				
	통계				통계				
기하와벡터	평면곡선	O	X	기하 (진로선택)	이차곡선	X	X		
	평면벡터				평면벡터				
	공간도형과공간벡터				공간도형과공간좌표				

3. 탐구 영역

- 현행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계열을 선택하고, 각 계열 내에서 최대 2과목까지 선택
⇒ **(쟁점)** 문·이과 통합이라는 교육과정 취지를 반영하여 탐구에서 **사회 1과목+과학 1과목 교차 선택** 의견 제기
- 다만, 인문사회·과학기술 각 계열별 적성·흥미가 많은 학생은 다른 계열 과목에 대한 시험 부담 등 우려
- 2015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신설
⇒ **(쟁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위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 필요 의견** 제기
- 다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융합교과라는 성격상 객관식 수능 출제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과정을 왜곡시킬 우려 존재 △출제 시 학생의 시험부담 지적
- **국가교육회의도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시험 제외 의견이 제기되므로 학교 현장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통지**

◦ 다양한 과목 선택 독려를 위해 **진로선택과목은 수능 출제 제외 방향**

⇒ **(쟁점)** 이공계열 진학 희망 학생을 위해 **과학Ⅱ 수능 출제 필요 의견** 제기

- 다만, 과학Ⅱ는 진로선택이므로 수능 출제 시 진로선택과목 의무화 문제 등 제기, '17. 8월 2021 수능 개편 시안에서 출제 제외 발표

< 과학과 교육과정 비교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능출제 (2019~2020)	교육과정		수능출제	
					2021	2022
물리Ⅰ (5), 화학Ⅰ (5), 생명과학Ⅰ (5), 지구과학Ⅰ (5)	일반 과목	○	물리Ⅰ (5), 화학Ⅰ (5), 생명과학Ⅰ (5), 지구과학Ⅰ (5)	일반선택	○	○
물리Ⅱ (5), 화학Ⅱ (5), 생명과학Ⅱ (5), 지구과학Ⅱ (5)		○	물리Ⅱ (5), 화학Ⅱ (5), 생명과학Ⅱ (5), 지구과학Ⅱ (5)	진로선택	○	검토 필요

◦ 직업탐구는 직업계열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 '05학년도 도입 이후, 특성화고 학생 진학률 감소, 대입 활용 감소 등으로 응시규모 축소

* 응시규모 : ('15학년도) 13,100명 → ('18학년도) 5,096명(총 수능응시자의 0.9%)

- 2015 교육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반영 및 전문공통과목 신설

⇒ **(쟁점)** 사실상 수능 응시·활용이 적은 **직업탐구 영역을 폐지**하거나,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1과목으로 통합** 출제 의견

- 또한, 직업 계열은 특성(농·공·상·해양·서비스)을 반영할 수 있도록 **5개 영역 반영 의견도 존재**

교과(군)	과목군			기준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음식 조리	성공적인 직업생활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서양 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조리·식음료과
		...후략...		

IV.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검토

2019~2021 수능	1안	2안	3안
국어	국어	국어	국어
수학(가/나)	수학(가/나)	수학(단일형)	수학(가/나)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	통합사회·통합과학	-	-
탐구 택2(계열구분) 사회 : 9과목 과학 : 8과목 직업 : 10과목	탐구1(계열구분) 사회 : 9과목 과학 : 4과목 직업 : 1과목	사회1+ 과학1 사회 : 10과목(통사 포함) 과학 : 5과목(통과 포함) -	탐구 택2(계열구분) 사회 : 9과목 과학 : 8과목 직업 : 10과목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 (1안) 통합사회·통합과학(1과목) 신설, 탐구 택1 선택

◦ 장점

△ 통합사회, 통합과학 반영으로 2015 교육과정 반영

*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신설로 인해 탐구는 택1로 축소

◦ 단점

△ 수학 분리 출제로 인해 2015 교육과정상 문·이과 통합 취지 미반영 지적

△ 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로 인한 학생 시험 부담 및 학교 교육과정 왜곡 우려

⇒ 검토

△ 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부대의견**과

△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융합형 교육이 **수능 출제로 인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할 때, **1안은 현행 유지 곤란**

□ (2안) 수학 단일형, 탐구는 사회1+과학1 교차 선택

◦ 장점

- △ 단일형 수학 출제 및 탐구 교차 선택으로 **2015 교육과정상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취지 반영**
- △ 사회1+과학1은 **2015 교육과정상 모든 학생이 최소한 이수하므로, 별도의 수능 준비 부담 최소화**
및 남는 이수단위로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 이수 가능

◦ 단점

- △ 단일형 수학은 인문사회계열 희망학생들 반발 우려, 대학 모집단위별 수학 요구 수준 차이 미반영
- △ 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 시에는 **학생 시험 부담 및 학교 교육과정 왜곡 우려**
- △ 직업탐구 폐지로 인해 특성화고 등 직업 계열 학생들이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 차단

⇒ 검토

- △ 통합사회, 통합과학 관련 **국가교육회의 부대의견과** △ 직업탐구 출제에 대한 고려
- △ **수학 단일형 출제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안의 원안 유지는 곤란, 수정 필요**

□ (3안) 현행 2019~2021 수능 과목구조

- 장점

- △ 대입 안정성

- 단점

- △ 2015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이며, 기존 대비 국·영·수 최대이수가능단위가 축소되었으나,

- 본 출제범위로 수능 출제 시에는 **현장 고교에서 사실상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곤란**

- △ 수학 분리 출제(가/나형)로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 교육과정 취지 미반영**

- △ 과학Ⅱ 진로선택과목의 수능 출제는 진로선택과목 취지와 달리 사실상 개설 의무화

⇒ **검토** : 2015 교육과정의 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3안은 현행 유지 곤란**

□ [추가] 공통과목 수능 검토

◦ (정의) 2015 교육과정상 고1 수준의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만 수능 출제

◦ (문제제기) **수능은 그간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 2~3학년 과목에서 출제해 왔으나,**

- 다양한 선택과목 보장을 위해 수능을 **고교 1학년 공통과목에 한하여 출제의견** 제기

⇒ (검토) **부적절, 일반선택과목까지 출제 필요**

- 사실상 대학의 수능전형 운영이 곤란하여,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결과 무력화** 야기

-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과목 선택보다는 고3 말 수능 시행일까지 고1 공통과목 반복학습**

- 반복학습 문제 해소를 위해 수능 시행시기를 고1 말 또는 고2 초로 조정하면,

△**현행 중3에 대한 3년 예고제 위반** △대상자를 중2로 변경하면 **현장 혼란 극심화** 우려

V.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

1. 검토의 전제

- (학생 측면) 준비 부담 불변 또는 완화
 - 출제범위가 과도하지 않을 것
 - (고교 측면) 교육과정과 연계
 - 교육과정의 취지(문이과 통합) 및 내용(과목명, 구조, 세부내용) 반영
 - (대학 측면) 수능 전형의 운영 가능성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 (정책 측면) 공교육 정상화 등 타 교육정책과 연계
- ⇒ 검토 : 특히, 교육과정 측면에서 수능 출제범위가 과도할 경우 학생의 고교 과목 선택권 축소, 과잉 축소 시에는 기초 수능과목 위주의 단순 반복학습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되므로, 적정 수준 설정 필요

2. 검토 방향

-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범위를 동시 검토**

- 수능 과목 구조는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
- 출제 범위는 2015 교육과정이 고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마련
- 수능 과목 구조는 **문·이과 통합 취지를 고려한 2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수학 단일형 △직업탐구 폐지 등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보완

- **국가교육회의 부대의견 고려** : 통합사회, 통합과학 출제 제외

3. 2022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

현행 2021 수능	2022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안)
국어 : 독서, 문학,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국어(공통): 독서, 문학 선택1(필수):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수학(가/나) 가형: 수학 I, 확률과통계, 미적분 나형: 수학 I, 수학 II, 확률과통계	수학(공통): 수학 I, 수학 II 선택1(필수): 확률과통계, 미적분
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한국사
탐구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 중 택2 (계열 구분) △직업계: 직업계열 중 택2	탐구 △일반계: 교차선택(사회1+ 과학1) △직업계: 전문공통1 + 5개계열 중 택1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과학 I, 과학 II) 직업: 10과목	사회: 9과목(현행과 동일) 과학: 4과목(과학 I) 직업: 6과목(공통1+농·공·상·해양·서비스계열별 1)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국어 영역 : 고교 교육과정 편성 부담 완화를 위해 공통형+선택형 구조

▷ 독서, 문학은 공통 출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학생이 1과목 선택 응시 (100점 만점)

◦ (장점)

△학생이 고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수 축소

가능(4→3과목)

△학생 시험 부담 완화

△과목 선택권 강화로 선택교육과정 취지 부합

◦ (단점)

△수능 과목 구조 복잡화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 발생

※ [추가쟁점] 공통국어 + 일반선택 1과목(안) ⇒ 신중 검토

▷(고교) 난도 높은 공통과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일반선택과목 개설

▷(대학)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 부족 지적

▷(출제) 동일수준 출제 불가능, (예시)문법 5문제 vs 문학 5문제

□ 수학 영역 : 문·이과 통합 취지를 위한 분리형(가/나) 출제구조 폐지, 고교 교육과정 편성 부담 완화를 위해 공통형+선택형 구조 도입

▷ 수 I, 수 II는 공통 출제, ▷ 확률과 통계, 미적분 등 1과목을 학생이 선택 응시 (100점 만점)

◦ (장점)

△공통형 수학 출제로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선택형 구조로 대학의 모집단위별 요구 수준 반영 가능

△2021에 비해 시험 부담 유사 또는 완화

◦ (단점)

△수능 과목 구조 복잡화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 발생

※ [추가쟁점] 공통수학 + 일반선택 1과목(안) ⇒ 신중 검토

▷(고교) 수학 과목은 공통·선택이 위계 체계이므로, 사실상 수학 I 을 제외한 수학 II, 확률과통계, 미적분 등 과목 선택 배제

▷(대학)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 부족 지적

▷(출제) 동일수준 출제 불가능, (예시)수학 I 15문제 vs 미적분 15문제

□ 탐구 영역 : 문·이과 통합 취지를 위해 일반계는 사회/과학 교차 선택,

(※ 과학Ⅱ는 출제 제외하며,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장)

직업계는 기존 탐구과목 축소·개편

▷ 일반계 : 사회(9과목) 중 1과목 + 과학(4과목) 중 1과목 교차 선택

▷ 직업계 : 공통과목(성공적인직업생활) + 5개 계열(농·공·상·해양·서비스) 중 1과목

* 5개 계열별 과목은 직업교육 관련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장점)

△ 계열 구분 없이 탐구 교차 선택으로 문·이과 통합 취지 반영, 직업계열 교육과정 반영

△ 사회1+과학1은 **2015 교육과정상 모든 학생이 최소한 이수하므로, 별도의 수능 준비 부담 최소화**

△ 다양한 사회/과학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여 선택형 교육과정 취지 구현

◦ (단점)

△ 인문사회·과학기술 각 계열별 적성·흥미가 많은 학생은 반대 계열 과목 부담 우려

△ 특정 과목 쏠림 심화

4.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 그간의 경과

-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관련 고교 교원 대상 의견수렴

◦ 향후 계획

- 대학(입학처장 등), 전문가, 고교 교원 등 대상 간담회 : 7월
-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공식의견 서면조사 : 7월
- 최종 수능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교육부) : 8월말



Fin